

II. 經濟 指標 포커스

1. 金利의 下向 安定勢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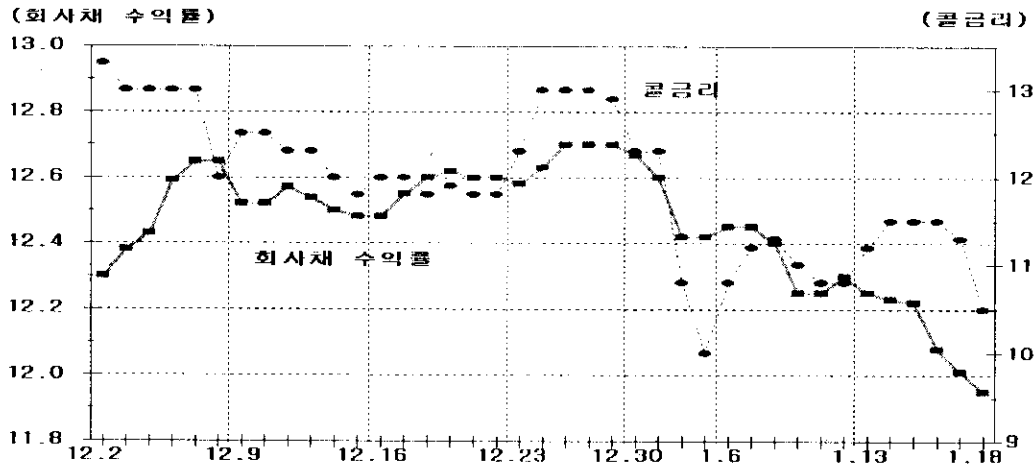
- (現況) 시중금리는 12월 중순 이후 지속적인 하향 안정세를 보임
- (原因) 최근의 하향 안정세는 당국의 신축적인 통화관리, 정부의 금리 안정 의지, 단기자금시장의 안정, 채권 수급상황 개선 등에 기인함
- (展望) 시중금리의 안정세는 1월 중순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

시중 장단기 금리는 지속적인 하향 안정세를 보임

- (現況) 시중 장단기 금리는 12월 중순 이후 지속적인 하향 안정세를 보이며, 지난해 5월 이후 지속되던 금리의 短高長低현상이 해소됨
 - 회사채 수익률은 12월 하순 연중 최고치 기록 이후 대폭 하락하여 1월 18일 현재 11.95%를 기록
 - 콜금리도 12월말정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1월 4일에는 10.00%로 작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, 18일 현재 10.50%를 기록

< 최근 시중 금리 추이 >

(말기준, %)



	1월	3월	6월	9월	12월	1월18일
회사채(3년)	12.04	11.44	11.70	12.40	12.90	11.95
콜(1일)	10.30	9.00	14.00	13.20	12.30	10.50

신축적 통화관리,
금리 안정 의지,
단기자금시장 안
정, 채권 수급 상
황 개선에 기인

- (原因) 시중금리의 하락세는 당국의 신축적인 통
화관리, 정부의 금리 안정 의지, 단기자금시장의
안정, 채권 수급 상황 개선 등에 기인
- 통화당국은 경기하강을 의식하여 작년 4/4분기 이
후 신축적인 통화관리를 지속하고 있음

< 최근 M2 및 MCT 증가율 추이 >

(단위 : %)

	94.12	95.12	96.3	96.6	96.9	96.10	96.11	96.12(E)
M2	17.7	13.7	14.6	16.3	17.5	18.9	18.2	18.0
MCT	23.3	21.6	22.3	22.2	21.3	21.7	20.5	19.5

주 : MCT = M2 + CD + 금전신탁

- 정부는 '金改委' 구성 시점에 1~2%p 금리 인하를
유도할 방침이며, 한은도 2월 23일경 추가적인 지
준인하(1.5%포인트)를 검토중임
- 별다른 자금수요 증가요인이 없는 가운데, 재정자
금의 지속적 방출 등에 따라 은행권의 지준사정
이 잉여를 보이는 등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세가
지속됨
- 1월중 회사채 발행량 및 순발행규모가 작년 연
말에 비해 크게 감소한 반면, 은행의 금전신탁
수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등 채권 매수 여력이
회복되어 수급불균형이 점차 해소되고 있음

< 채권 시장 수급 동향 >

(단위 : 억 원)

		9월	10월	11월	12월	97.1월
채권공급	발행허용량	19,521	28,715	31,009	28,491	22,611
	순증	6,237	18,259	18,180	13,429	8,340
금융기관 수신증감	은행 금전신탁	6,681	7,747	10,097	41,683	-
	투신사 공사채형	3,508	446	-6,124	-8,542	-
	합계	10,189	8,193	3,973	33,141	-

시중 금리의 안정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

- (展望) 시중금리의 안정세는 1월 중순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
- 정부의 고금리 해소 노력 지속과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 둔화로 통화당국의 신축적인 통화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
 - 재정원은 올해부터 특정월에 세금납부가 몰려 재정수입이 많은 시점에 국고여유자금을 단기적으로 금융 시장에 풀어 금리안정을 도모하는 새로운 통화관리방식을 검토중임
 - 통화량의 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금리 안정을 도모함
 - 또한 단기금리의 하향 안정세와 회사채 수급상황의 호조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
 - 그러나 연초 국제유가 및 국내 농산물 가격의 상승에다 대기중인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른 물가불안 우려와 원화환율의 지속적 상승이 명목 금리의 안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남아있음

(김 범 구)

2. 株式 市場 回復 局面인가?

- (現況) 1월 7일 611.05 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금융개혁에 대한 기대 여파로 상승을 거듭하면서 18일 현재 694.23 포인트 선까지 회복하였음
- (最近 證市 沈滯 原因) 지난 3개월간 주식시장 침체의 주요 원인은 경기 회복 불투명, 원화환율 하락세 지속, 특히 신용매물 증가세 등의 원인에 기인하였음
- (展望) 노조의 총파업에 대한 영향은 이미 증시에 반영되었다고 보여짐에 따라 이후에 발표될 증시안정책에 따라 증시도 회복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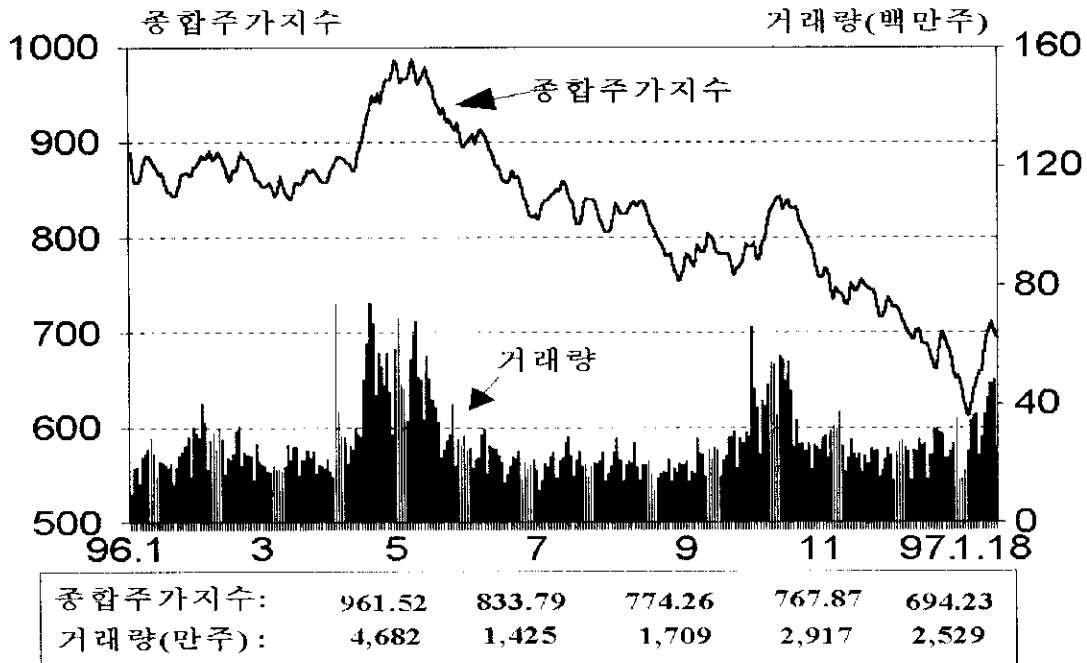
1월 7일 611 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금융개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지속

- (現況) 지난 1월 7일 노동계 파업의 영향으로 611.05 포인트의 저점을 형성한 이후, 대기업을 중심으로 금융업 진출 허용이라는 호재를 발판으로 금융주 중심으로 상승하여 18일 현재 694.23 포인트 선을 회복했음
 - 지난 1월 7일 주식시장은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실망감과 노동계 파업 여파, 그리고 신용만기 물량의 증가 등 악재가 겹쳐 종합주가지수가 전날보다 무려 15.82 포인트가 떨어진 611.05로 마감되었음
 - 이는 지난 93년 3월 6일의 605.93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음
 - 그러나 금융개혁위원회 설치라는 대형호재를 발판으로 금융주를 중심으로 수직 상승하면서 18일 현재 694.23 포인트 대를 회복했음

전반적인 경기 침체 여파외에 신용만기 물량의 증가에도 기인함

- (最近 證市 沈滯 要因) 가장 큰 이유는 경기침체에 신용만기물량에 기인하고 있음
 - 지난 3개월간 증시 하락 요인은 경기회복 불투명, 원화환율 하락세 지속, 특히 신용매물 증가세등 임
 - 앞으로 1~2월에 걸쳐 상환되어야할 신용물량은 1조 8천억 원으로 추정되어 신용물량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. 게다가 노동계의 파업도 악재요인으로 작용할 것임

<최근 주가지수 동향>



노조의 총파업 이후에 발표될 증시 안정책에 따라 증시도 회복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다

- (展望) 노조의 총파업에 대한 영향은 이미 증시에 반영되었다고 보여짐에 따라 이후에 발표될 증시안정책에 따라 증시도 회복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다
 - 예상되는 증시 안정책으로는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, 공기업 매각 보류(공기업주식 매각이 중단되면 약 3조5천억원 안팎의 공급 물량 감소 효과가 발생), 연기금 주식 매입 확대 등이 가시화되고 있음
 - 그리고 금융개혁 조치의 하나로 기준율이 인하되어 시중 실세금리가 1~2% 포인트 낮아질 경우 대세 상승도 가능할 전망이다
 - 이러한 부양책은 주식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증시하락을 방지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증시안정에 대한 의지 표명이라는 점에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
(천 일 영)